

별첨: 작품이미지 및 설명

작품 이미지



'신학과 실천' 작품 설명

본 작품은 '신학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은 좌(左)와 중(中)과 우(右)로 나누어 좌는 신학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앙은 '신학'을 우는 '실천'을 나타냅니다. ① 좌측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창1:1) 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심과 성령님을 노란색 계열에서 붉은 색 계열의 색과 십자가로 표현하였습니다. ② 중앙은 신학에 대한 부분으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 태초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생명의 부여자시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님 안에서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의 발전을 하고자 하는 실천신학회를 표현했습니다. ③ 좌측은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전반에 기여하며 세계교회와 학문적인 교류와 나눔에 기여하는 실천신학회가 되는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포도열매와 초록계열의 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그림을 스테인드글라스 형태로 표현 한 것은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다양한 신학적 색의 조각들이 모여 조화롭고 새로운 실천신학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